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지성인의 통찰과 염원이 담긴 여행기

〈수많은 운명의 집〉

지은이 슈테판 츠바이크
펴낸곳 민음사



사람들은 평화를 꿈꾸지만 지구촌 곳곳에선 갈등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때, 참혹한 세계대전의 중심에서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유럽의 양심, 슈테판 츠바이크의 여행기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과 스위스, 한때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곳곳을 모험가적 시선으로 관찰하는 츠바이크의 여행기 속에는 혼돈의 시대, 평화와 화합을 꿈꾸는 지은이의 이상과 인간에 대한 믿음, 고국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 여행의 참된 의미를 묻고 속된 세태를 비판하는 흥미로운 작품들도 함께 실려 있다. 표제작 〈수많은 운명의 집〉에는 나치와 전쟁을 피해 망명하는 피란민의 참담한 모습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고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수많은 지성인들과 교류했던 작가의 시적이고 감미로운 문장과 재치 있는 묘사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평소 세계사와 지리, 도시와 건축, 역사 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1957
수많은 운명의 집
"여남" 신티 오실 주년을 맞이해 런던에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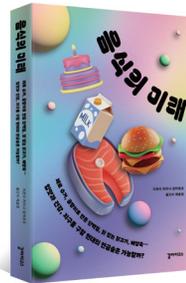
말년이 오늘 이 나라에서 지 나라고, 배고 혹은 기차로 여행할 때, 당신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술을 둘러볼 시간도 있을 때, 그렇다하면 당신은 국경에 가까워지는 순간 읽어나갈 많은 여행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다는 논 의야하게 여길 것이다. 그들은 불안해한다, 더 이상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한다, 관동 건강할 정도로 이리저리 사색거린다. 말없이 그들을 영수한다. 최기사의의 불안이, 그들에게서 이 변화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 한 시간 더 가면, 빈 시간 더 가면 보살이 시작되고, 여왕과 카타리 불확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모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충성이 다르고, 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에서 기다리고 있는 불안은 이제 그들 은 온계를 빌려 사보았다. 사람들은 의욕이 순환적으로 나타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나처럼 그들이 계속 멀리는 순간으로 이 큰 약간의 두뇌 광명 서류가 든 양복 안장의 주머니를 대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집에서 모든 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세련과 우수로써 관한

155



책 읽을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학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내일교육)이 꼼꼼히 살펴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오는 두 권의 새 책, 기대해주세요. 편집자

명쾌한 미래 식품 안내서



〈음식의 미래〉

지은이 라리사 짐베로프
펴낸곳 갈라파고스

2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될까? 이상기후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공명으로 만든 단백질과 식물성 고기, 세포 배양육 등 다양한 미래 음식들을 개발하고 있다. 식량 평등과 동물 해방, 유해성분 제로를 표방하는 '대체식품 기술', 말은 그럴듯한데 한편으로 각양각색의 실험실 음식들을 우리가 마음 편히 먹어도 되는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다. 제형 당뇨병 환자로 어릴 적부터 모든 음식을 성분 단위로 분석해 섭취하고, 관련 분야 기자로 첨단식품기술 분야를 폭넓게 취재해온 지은이 라리사 짐베로프는 자신의 병력과 이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다. 지은이는 식품회사들의 마케팅에 의지해 식탁을 꾸리기 전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실질적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꼼꼼하고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식탁을 구상해 보는 방법도 안내한다. 평소 농축산업과 미래 식량, 환경문제에 흥미가 있거나 자연과학 계열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일독을 권한다.

10. 2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될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멋진 시도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것을 주제로 할 때해서 이 한 가지 질문만 다루려고 한다. 2040년에 우리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 식물성에 실용적이고 세계적인 편차가 일어나거나 20년은 뒤였다. 50년은 뒤였다. 무중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1931년에 나온 린스킨 케일(Lincoln's Kale)의 수확 모습집 『목장회 환자문예』에는 미래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글에서 저자는 "잘 만 미래를 통째로 읽는 이치구리는 '방식' 대신 '가슴'이다. 다리, 허벅지 등 원하는 부위를 '의심론'에서 각각 따로 키워내는" "난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한 호모지인 '대생물'도 통째로 환경 조건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이 맺어졌다. 저자가 50년쯤 뒤에 일어날 일도 예상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까지 80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세 군이 20년 뒤를 내다보려고 할까? 기술이 발전 속도에 따라 세상도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지구의 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0년이나 100년, 150년 뒤의 일은 너무 멀게 느껴

10. 2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될까? 305